

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잔혹사...동물학대 위험수위

창문 밖 난간 위 강아지 벌벌...경찰 조사 “물건 취급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뀌어야”

충북지역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체적·물리적 학대 등 잇을 만하면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4층 창문 밖 난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난간 위를 위태롭게 서있던 강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은 견주를 상대로 고의로 강아지를 창문 밖 난간에 둔 것인지 동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충북 증평군에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60대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증평읍에서 무허가 사육 농장을 운영한 농장주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 등으로 다수의 개를 도

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 봉과 소각장 등의 시설을 확인했다.

농장주는 경찰에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농장주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난 1월 옥천군 옥천읍에서도 차량 범퍼에 목줄이 묶은 채 죽어 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를 본 행인은 “운전자가 동물을 차에 묶고 끌고 다닌다”며 동물단체에 제보했다.

동물단체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동물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0대 운전자는 경찰에 “개를 묶어 놓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은 해마다 학대당하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은 2017년 14건, 2018년 26건, 2019년 26건, 2020년 28건 등 모두 94건으로, 97명이 검거됐다. 이 중 74명은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기소 됐다.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학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 인정돼 소유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타인에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시,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추산된다.

도내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동물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동물 학대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동물이 사유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구성해 ▲가족 개념 재정립 ▲상속제도 개선 ▲주거공유 지원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5대 중점 과제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충남대’ 폭탄 테러 협박범은 대학생...자수

어머니 학교에 와 자수 의사 전달 경찰 “조사 다 마쳐, 협박죄로 입건”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20대가 검거됐다.

3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 3시 30분에 터지도록 셋팅했다’고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 A씨가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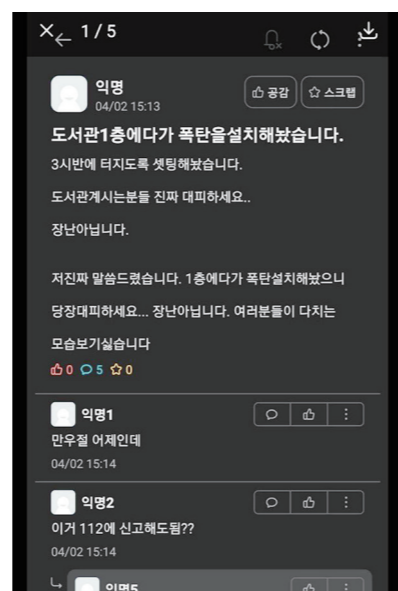
이 소식을 들은 A씨 어머니가 충남대에 와 A씨와 함께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협박죄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조사를 다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날 학교 SNS에 폭탄 설치 글을 올려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최이슬 기자



‘노원 세모녀 살해’ 20대 구속심사, 20분만에 끝나

“스토킹 인정하냐” 등 질문에 대답 안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렸다. 심문은 불과 20여분만에 끝났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32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A씨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시15분께 법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치장이 있는 도봉경찰서를 나설 때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왜 살인을 저질렀냐”,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 “피해자 집을 어떻게 알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청사에 도착한 A씨는 호송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도 A씨는 “(처음부터) 가족까지 모두 살인할

계획이었느냐”,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 “집에 어떻게 찾아갔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후 A씨는 심문을 마치고 오후 2시37분께 심사를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심문은 2시20분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었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큰딸 스토킹이나 계획범행을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라고만 대답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법원이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또 마지막 딸로 귀가한 큰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대화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퇴원한 A씨를 상대로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나기자

광주서 가스충전소 창고 불...37시간 만에 완전 진화

광주 도심과 인접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폭발 이후 난 불이 인명피해 없이 분출 가스를 모두 태우는 방식으로 37시간 만에 꺼졌다.

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6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외곽의 LPG 충전소 내 옥외 LPG저장고 관리 창고에서 폭발음을 동반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53㎡ 규모 충전소 사무실(철근 콘크리트 재질) 일부와 트럭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8대와 소방관 160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불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저장소를 옮긴 뒤 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